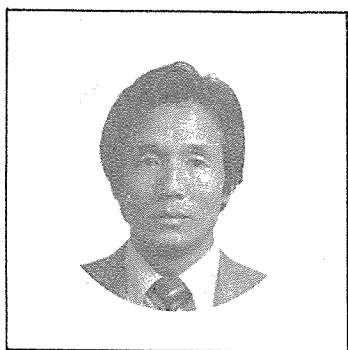


과학기사의 효율적 작성방안

讀者의 情報욕구 충족시켜야



李 龍 水
東亞日報 과학부장

□ 과학언론의 이해

오늘날 과학언론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적어도 식자들이면 누구나 입만 열면 '과학기술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생각에만 그치고 있을 뿐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나 일반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는 '과학기술이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60년대 이후 계속하여 과학기술입국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대중의 의식, 태도는 진실로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왜 우리가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가'하는 문제는 이미 슬하게 논의돼 왔다. 즉 우리가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가치의 제고, 한정된 국내 자원의 해결, 질 높은 고급인력의 두뇌활용, 외국의 기술을 이전받기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를 해

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제 과학기술은 국가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기술패권주의라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 오고 있다.

또 한편으로 과학기술이 펼쳐고 있는 새로운 영역은 합리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사유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이다. 과학기술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현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과학기술은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특수작업으로 인식돼 왔고 보통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과학기술문제는 언제나 정책의 뒀안길에 팽개쳐져 있었으며, 이러한 정책의 부재는 문화정체를 심화시켜 현실의 과학기술문명을 즐길 수 없는 과학문맹 대중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과학언론의 특성

과학언론은 20세기에 들면서 꽃핀 많은 새로운 특수 언론분야중의 한 분야이다. 물리, 화학, 생

물, 엔지니어링의 과학언론을 꽃피웠고 최근에는 건강 의학 등이 각광받고 있으며 행동과학분야도 과학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다. 이제 과학언론의 영역은 사회 거의 전분야로 망라돼 가고 있다.

이처럼 과학언론이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인류의 끈질긴 도전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과학인가. 이 문제의 답은 쉽지 않다. 많은 관찰에서 얻은 논리적 추론을 과학이라고 하지만 역설적인 과학도 있다.

첫째는 자연의 정복이다. 실제로 이러한 시가는 18세기를 풍미했다. 그러나 자연의 훼손, 환경의 오염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생각은 도전받고 있다. 그리고 자연의 정복이 과학이라면 천문학은 과학이 아닌가.

둘째는 물질의 연구이다. 이러한 관점은 아인슈타인에 의해 대표되고 있는 견해다. E=MXC의 제곱이란 식의 과학을 설명했다. 그러면 오늘날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행동학은 과학이 아니란 말인가.

셋째는 대중의 이해이다. 알려지지 않은 과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듯이 영원히 비밀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는 실험방법이다. 그러면 실험이 불가능한 고생물학, 인류학, 고고학은 어디에 속하는가.

과학기사를 쓰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 대상이 자연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진리를 찾기란 그만큼 힘들며 찾아진 진리를 남에게 설명한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설명하기가 보다 쉽다. 경험이 크게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과학기사는 교육적인 속성을 갖는다. 과학지식은 사회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은 형이상학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지식으로 알아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것은 사회교육의 일면을 갖는다. 고도의 지식이나 생활정보를 갈구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학기사는 좋은 양식의 터밭이 된다.

과학기사는 재미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오늘날 재미의 속설적인 표현에는 읽어서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약간은 말초자극적인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등의 의미가 강하게 포함돼 있다. 어쩌면 관심이나 토막상식같은 것이 재미있고 지식으로 남을 만한 기사는 재미없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과학기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다. 이렇게 기사를 보는 대중들 속에 과학기사가 파고 들기란 쉽지 않다.

□ 대중매체의 속성

대중매체는 그 나름대로의 속성이 있다. 오늘날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TV, 비디오, 영화 등 영상매체이다. 더욱 과학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그림 혹은 實演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란 분석이 있고 보면, 과학기술의 이해에서 TV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그러나 영상매체는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신문은 깊이있는 해설로 충분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지만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안다는 것과 이해는 다르다. 오늘날 신문에서 많은 그림이나 사진을 실으려고 하는 것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과학기사는 더욱 그렇다.

신문과 TV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때 보다 완벽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신문이 가진 특성과 영상매체가 가진 특성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영상매체와 달리 잡지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비교적 여유있는 편집시간과 지면이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잡지란 학술용의 전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을 위한 대중 과학잡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느 매체도 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방송·신문·잡

지들이 모두 특정 없이 제 갈 길만을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잡지가 그래도 무리없이 정확하게 대중의 과학이해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 과학기사의 뉴스원

가. 개 인

일반적으로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기사원이다.

과학기사에서는 과학자가 바로 기사원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자를 기사의 소스로 접근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있다. 그들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첫째는 과학언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언론과는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언론지향성의 과학기술자 가운데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집단이 언론을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다. 개인사업자, 의사, 그리고 연구비를 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과학자들은 정확한 용어의 사용에 물 들어진 사람들이다. 혹시 이 문체때문에 종종 기자들과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기자들은 일반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려 하고 과학자들은 그들의 전문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선택이 가장 바람직하다.

나. 학술회의

공개된 과학기사의 정보제공처이다. 국내외에서 열리고 있는 많은 학술회의는 학자들의 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곳이다. 그러나 학술회의마다 실제로 모두를 커버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뉴스의 정보원이다. 학회사무실이 중요한 정보원이 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학회사무실에서 뉴스를 제공해 주는 곳도 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뉴스를 제공하거나 뉴스공급자를 알선해주는 기관도 요즘 생겨나고 있다.

국내의 취재들이 학술회의의 취재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너무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생활과학기사를 좇으려는 우리나라 과학기사의 속성때문이다.

다. 전문잡지

요즘 국내의 과학기사 가운데 외국의 전문잡지를 이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전문잡지란 대중을 위한 과학잡지를 말한다.

불행히도 국내에서는 몇가지 전문잡지들이 나오지만 국내의 일간지나 영상매체들이 국내 잡지를 인용한 기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잡지들이 외국잡지들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외국의 잡지를 이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과학기술은 지구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다. 물론 경우에 따라 토속적인 과학기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그것 자체가 뉴스일 수 있다.

□ 과학기사의 작성 요령

기사작성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전해진 내용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잘못된 것을 보완하는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학기사는 과학언론인들과 과학정보를 제공하는 과학자들은 물론 이를 수용하는 대중들이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탕위에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화제를 인체물 속에서 살아 만드는 재능은 분명히 하나의 예술이다. 그러자면 언어에 대한 상상력과 꾸준한 자기훈련 및 수련이 필요하다.

기사를 쓰는 일반적인 원칙 즉 뉴스의 크리테리아는 즉시성, 시의성, 충격성, 의미성, 첫 사건, 인류의 관심사 등이 꼽힌다. 물론 다른 기준으로 생존의 필요성, 문화의 욕구, 지식의 욕구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원칙은 과학기사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기사는 사람중심의 얘기가 잘 읽힌다. 과학기

사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얘기를 바탕에 깔아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은 실리적인 기사에 잘 길들여져 있다. 당장 자기에 이익이 되는 것, 활용가능한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오늘날 뚜렷한 독자들의 정보욕구이다.

오늘날 국내외의 기사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의학분야이다. 그것은 사람을 주제로 한 데다 바로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의학분야에 이어 정보통신이나 에너지 분야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그 정보들이 산 지식으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사를 작성할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야기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사는 짧게 쓰는 것이 좋다. 신문의 경우 2백자 원고지 7매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사를 사진으로 가장 열심히 설명하는 신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 뉴욕타임지다.

(2) 숫자는 적당하게 정리한다. 일상어에서는 과학에서는 사용하는 0점 이하의 소숫점을 해석할 길이 없다. 숫자의 나열은 그만큼 독자들로 하여금 싫증을 느끼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기사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통계적인 자료들이 제공되는데 이 통계적인 자료가 기사를 이해하는데 실제로 어느정도 유용하게 해석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3) 기사는 간단하고 명쾌하게 쓴다. 그리고 뜻이 쉽게 전달될 수 있게 써야 하며 전달하고 싶은 인물의 얘기라면 그 특정 인물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사를 쓰면 도움이 된다. 짧은 문장을 쓴다는 것은 분석결과 가장 좋은 기사작성법이란 것이다.

(4) 곧 바로 기사의 요점으로 들어간다. 특히 기획기사에서는 요점을 뒤로 미루며 군더더기로 기사의 양을 늘리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독자

가 돈과 시간을 없애면서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것은 도움이 될 정보를 얻자는 것이다. 정보를 줄 수 없다면 그 기사는 죽은 기사이다. 오늘날 스트레이트성 기획기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

(5) 독자의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 하지말라. 그리고 너무 과대평가 해서도 안된다. 그 보다는 기사의 가치 평가가 더 중요하다.

(6) 하나의 기사속에 너무 많은 내용의 기사를 넣으려고 하지 말라. 많은 내용이 들어갈 경우 기사의 초점이 흐려진다. 또 한 문장에는 한개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된다.

(7) 기자들에게 구문이라고 해서 독자들에게도 구문일 수 없다. 독자들에게 새로운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다룰 가치가 있다.

(8) 독자들이 7, 8줄의 문장을 읽을 때마다 어째서? 무엇때문에? 또는 그래서 어떻게? 라는 의문을 줄줄이 엮어 내면서 독자를 끌고 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주어야 한다. 그때마다 그런 질문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면 독자들은 곧 읽기를 그만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9) 기자가 '재미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 '이 발견(사건)은 재미 있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또 재미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구태여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

(10)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을 쓸 때 자신이 참고한 모든 문헌에 대해서 지학적인 참고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게 하는 실마리를 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어려운 말을 쉽게 풀이 하려다가 어려운 말로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함께 생각해 볼 일

가. 과학용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과학용어의 사용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현대의 과학기술이 서양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오늘날 자연적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용어도 서양

의 언어가 많다.

이런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니 말이 어렵고 자기나라말화 하자니 적당한 용어를 마련하기 그리 쉽지 않다. 가령 일본의 경우 원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어를 자기나라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원칙은 적당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자는 주장이 많다. 일부 학회에서 우리말사전을 내고 있으나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은 새로운 단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집단중의 하나인 과학언론분야 종사자들의 심각한 문제들이다.

기자가 기사속에서 올바르게 과학기술용어로 쉽게 풀이 해 준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다. 난해한 기술용어를 쓸 때는 첫번째 문장에서는 그대로 쓰더라도 다음 문장에서는 문외한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유사법으로 쉽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독자들은 기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만큼 새로운 말에 대해 겁을 먹지 않고 있다. 그들은 차차 용어에 익숙하게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설명이 필요할 경우 짧고 명쾌하게 설명하되 그 설명때문에 문맥을 놓쳐서는 안된다. 나는 원어를 그대로 쓰자는 입장이다. 과학언론은 교육의 속성이 있으니가.

나. 과학필자의 발굴

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큰 재주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매끄러운 글을 쓴다면 과학기자로써는 더 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과학언론인 부족을 느낀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언론이외의 직종에 있으면서 과학언론에 기여하는 과학필자를 찾는 것이다.

오늘날 많이 이용되고 있는 외부 과학언론인들은 의사들이다. 특히 건강문제가 독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서 이들 의료인 필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용에는 언론을 그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측면

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어쨌든 유능한 과학필자의 발굴은 과학언론인들의 중요한 임무다. 그들은 유능한 외부필자를 발굴함으로써 과학언론의 영역을 그만큼 넓힐 수 있다.

과학기자들이 해야 할 또 한가지 일은 과학필자의 발굴 못지 않게 과학자가 언론에 간여하면 오히려 학문적인 낙오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과학언론의 대열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언론의 활성화는 본질적으로 과학기술자들의 지원과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론기피 과학자들에게는 그들의 연구결과를 대중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간의 알고자 할 정신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다. 과학뉴스의 모호성

과학은 그 속성상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과학기사들은 모호하게 다루어 지거나 때로는 의미가 잘못 전달돼 취재기자와 뉴스 소스간에 실랑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 원인은 과학기사의 난해성 때문이다.

과학기사에서 기자와 뉴스 소스사이에 생기는 마찰은 과학자들은 의미와 정확성을 강조하는 반면 기자들은 때때로 의미만을 강조함으로써 기사의 가치를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실수는 기자들의 잘못으로 귀착된다.

오늘날 과학기술보도론이 심각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과학기술을 둘러싼 두개의 가치기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흔히 기사를 객관화시키기를 요구받고 있지만 절대적인 객관화란 힘든 경우가 많다. 가령 원자력의 경우 핵무기를 만드는데 쓰였을 때와 전기를 얻는데 쓰였을 때, 원자력이 전기를 생산하면서 핵폐기물을 내고 있을 때, 그리고 인공심장을 넣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그렇다.

◇이 글은 한국언론연구원이 「과학저널리즘」을 주제로 5월9~11일 춘천 리오관광 호텔에서 개최한 워크숍의 발제 논문을 전재한 것임 편집자